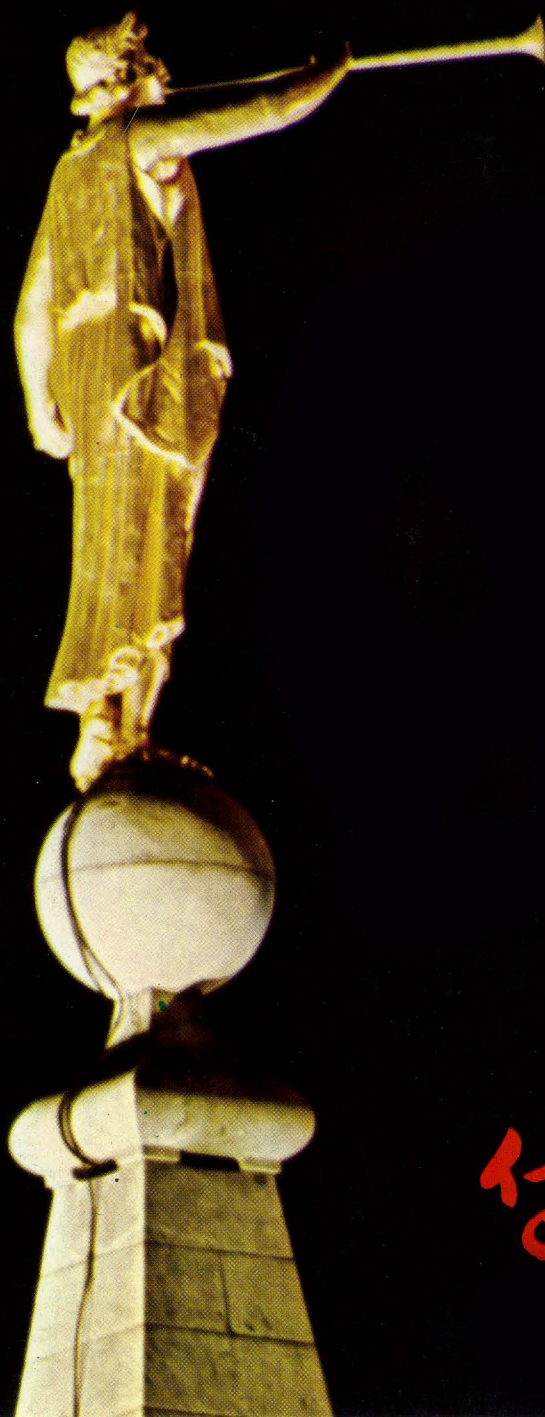




성도의 빛 12
1974

순서

- | | | |
|----|---|-------------|
| 1 | 그리스도의 대속 : 가장 큰 은사. 매리온 지 롬니 | |
| 4 | 잊을 수 없는 선물 | |
| 8 | 한 아기의 탄생 | 마벨 존스 개봇 |
| 10 | 주는 것과 받는 것 | 로버트 제이 매튜스 |
| 12 | 요셉 형제 | 칼 앨링톤 |
| 16 | 말빈 제이 벨라드 | |
| 20 | 질 의 응답 | |
| 21 | 세 가지 선물 | 앨런 언하트 모리슨 |
| 23 | 대관장단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 |
| 24 | 성탄절 촛불 | 릴리 디 채핀 |
| 26 | 세계 각국의 성탄절 | |
| 30 | 마지막 순간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 33 |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 보이드 케이 패커 |
| 37 | 구세주의 성역 |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
| 40 | 간증의 힘 | 하트만 렉터 이세 |
| 44 | “내가 너희에게 복을 보지
아니하나 보라” | 헨리 디 테일러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 일

발행일 1974년 12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통권 113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 - 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정가

1 권 15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 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 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 불

벧

월간

성도의 벧

제10권 제12호 1974년 12월호

그리스도의 대속 : 가장 큰 은사



대 관장단 메시지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보좌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대속의 큰 은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보도 기관을 통해 매일 전해지는 인간의 방법과 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대속의 의미를 알고 이로 인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대속이 주는 두 가지 축복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가장 쉽게 그리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은 축복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22)

물론은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통해 대속의 두 가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 (모로나아서 7 : 14)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녀야만 부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요 5 : 28-29) 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영생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구속이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축복을 얻기 위해 부활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엠울레크는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노라

“...보라 지금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 너희가 회개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즉시 너희에게 내려지리라”(앨마서 34 : 30-31)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받으며,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선행을”(모 5 : 2) 하고자 하는 거룩한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해 집니다. (모 4 : 3 참조) 예수님의 뜻은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 : 28-30)

만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인간이 만든 어려움과 슬픔은 솟아오르는 태양 앞의 햇살에 흰서리처럼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니파이사서에는 이와 같은 생활로 200년 동안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지켜 온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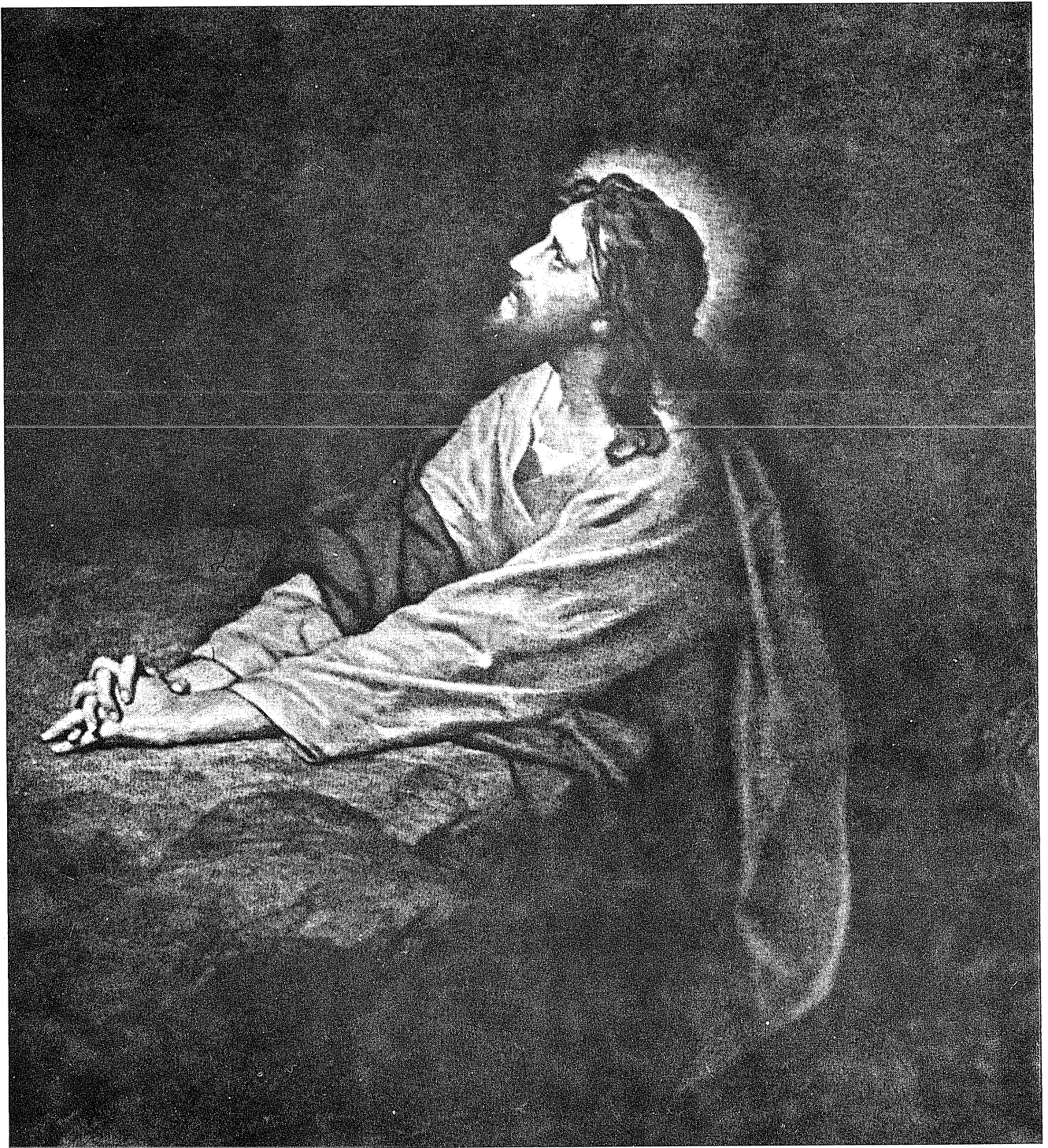
“삼십 육년에 이르러 온 땅의 백성들이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개심하여 주께

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것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2-3, 15-16)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을 넘어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조금씩은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예외에 속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때 불결해집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진 만큼 세속적이고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변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인한 더러운 얼룩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지” (니삼 27:19)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도록 자유의지를 행사했을 때는 그 곳에서 쫓겨나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딸”(교성 76:24)입니다. 예수님은 낳으신 영의 자녀 중 맏아들이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시험의 기간은 영의 세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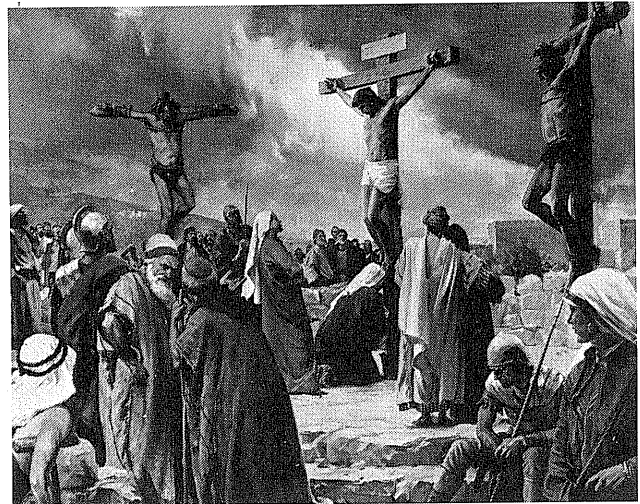
이 계획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죄없는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고 임명을 받았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전 570년 경에 리하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죄의 제물”로 바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율법의 뜻을 이루시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매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을 세상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니파이서서 2:7,8)

아홉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시나니, 보라 그가 만민의 고통 곧 아담



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겪으실 것이요”(니파이서서 9:21)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당한 지 1800년 만에 몸소 한 형제를 불러 다음과 같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전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었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5-19)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의 댓가로 우리는 신앙을 갖고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큰 은사인 예수님의 대속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圖

잊을 수 없는 선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성탄일에 세상에 주신 은사는 그 이후 줄곧 하나님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성탄절을 참다운 의미로 맞게 해주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이태리, 1943

월터 스티븐슨
영국, 런던

선물

나는 1943년 몹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맞은 성탄절처럼 그 날의 참된 정신을 마음 속 깊이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태리 주둔 미 제5 군단 예하 영국 사단에 있었다. 우리가 살페르노에 상륙한 후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우리는 12월경에 나폴리 북부로 서서히 이동했다. 진흙과 수렁에 빠져 몸이 젖은 우리는 추위에 떨고 지쳐 있었으며, 고향 생각에 우는 동료들도 있었다. 성탄절이 이처럼 황량하고 멀게 느껴진 때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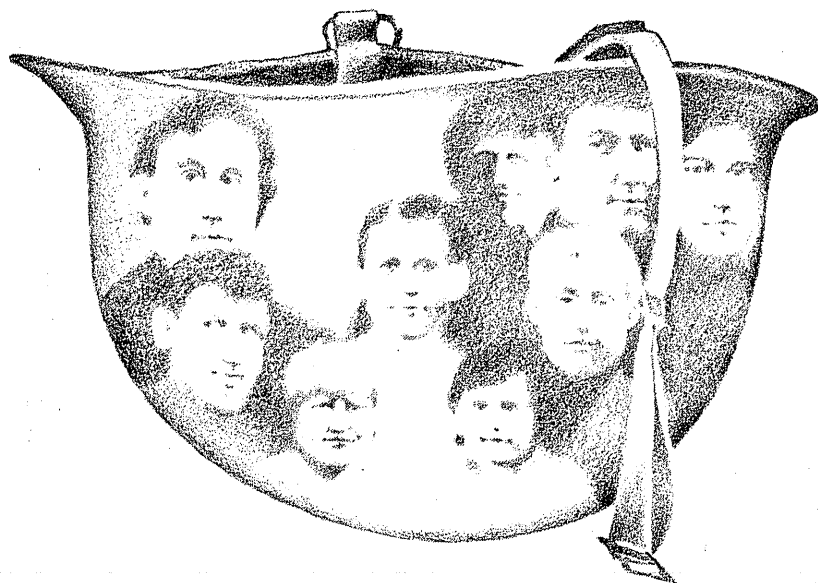
우리는 총성이 잠시 멎은 틈을 타서 조그마한 농장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 시골 마을에는 인적이라곤 없었다. 우리는 한 농가에서 농부와 그의 아내와 일곱 어린이들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들은 우리에게 저녁 스프를 대접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농부는 우리에게 말했다. 두 살난 막내부터 14살된 만아이까지 모두 여러 날 동안 지하실에 함께 숨어 있었다. 두 소녀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소녀는 등에 파편을 맞아 고생하고 있었다. 농부인 아버지도 팔에 부상을 입었다. 가족은 거의 도살되었으며 창고도 불에 타버렸고 퇴각하는 독일군들이 말과 식량과 몇 점의 가구를 가져가 버렸다. 그들에게는 비누도 약도 식량도 거의 다 떨어졌다. 그러나 집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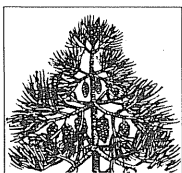
그들의 협조로 우리는 그 집에 포병 지휘소를 두었다. 나는 의무병이었는데 지휘관은 나에게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도록 지시했다. 포병대의 전 부대원들은 성탄절을 쓸쓸하게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이 가족을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 주었다.

우리는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부대원들에게서 화장 비누와 화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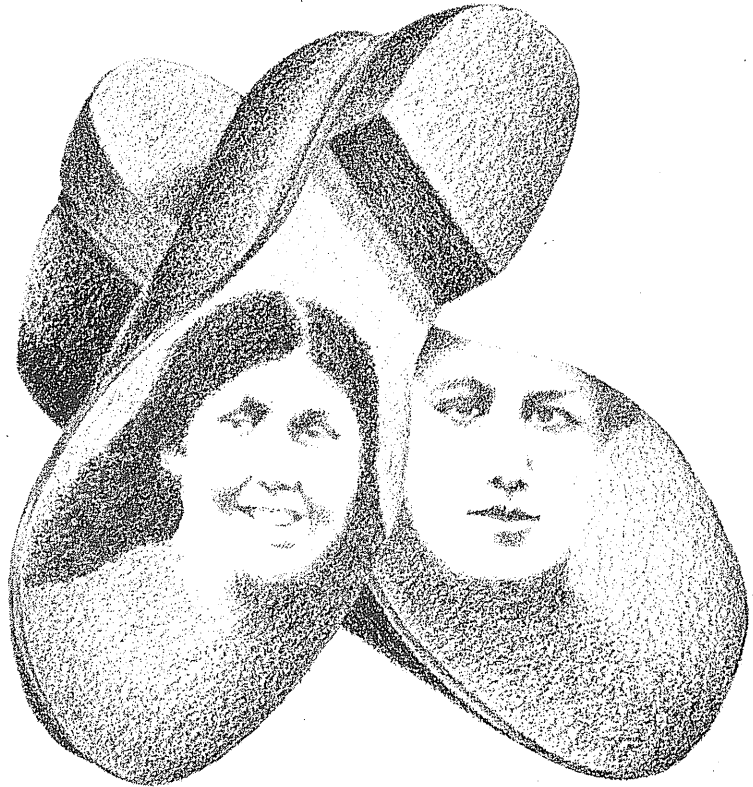
분과 과자와 여러 가지 물건을 걸어
모았다. 또 우리는 뿌리까지 뽑혀 있
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줏어 왔다.
성탄절 장식용 나무는 아니었지만 우
리는 그 나무를 은종이와 갖가지 색깔
의 포장지로 장식했다. 우리가 그 성
탄수를 다 만들고 나니 이것은 군인
들이 그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사랑으로 장식되어 지금껏 보지 못하
던 아름다운 성탄수가 되었다. 성탄
전야의 취침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이
영국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드
리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성탄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자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탄절 만찬에서 우리는 성
탄절을 맞아 먹는 스파게티를 처음으
로 들어 보았다. 이태리의 농부 가족
도 처음으로 영국의 성탄 푸딩을 먹
어 보았다. 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같은 소박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과 그들이 우리를 안고 입마춤
하여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했
던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가족은 영어를 몰랐고 우리도 겨
우 몇 마디의 이태리어 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 농부가 “지
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
니다”는 뜻의 성탄 만찬의 인사말을
알아 들을 수가 있었다. 그곳에 참석
한 몇몇 군인들에게는 그 성탄절이
이 세상에서 맞는 마지막 성탄절이
되었고 그 전투에서 살아 남은 우리들
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되
었다.



추위에 언 발, 따뜻한 마음

니콜 필로사
프랑스, 마르세이유



마르세이유의 그 해 겨울은 몹시도
추웠다. 온 시가지가 꽁꽁 얼어 붙어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
지고 돌아오는 길에 두 알제리아의
소녀와 마주쳤다. 한 소녀는 18세, 다
른 한 소녀는 13세쯤 되어 보였다. 여
름 슬리퍼를 신고 있는 어린 소녀의
발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나는 그 소녀를 돕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 그녀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에 좋은 신이 몇 켤레 있는데
아무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던 참이
었어. 혹 필요하다면 주고 싶은데.”
라고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
었던지 “그 신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지금요?”라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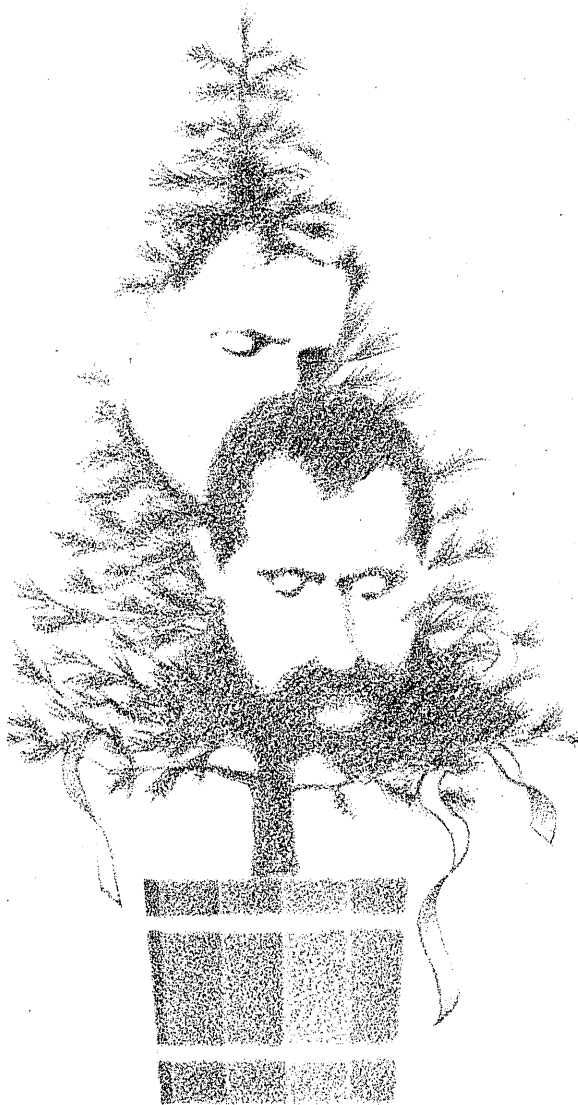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두 소녀
는 나를 따라 집으로 왔다. 소녀가 신
을 신어 보니 꼭 맞았다. 그녀는 난
로 옆에 잠시 몸을 녹이면서 성탄수
를 보고는 “이렇게 예쁜 성탄수는 처
음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이 나의 마음에 울려 왔
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인종과 종교
가 다른 세 명의 자매 사이에는 오직
자매로서의 의식 이외에 아무 것도 없
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
며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화분에 심은 소나무

로저 케이 윌리엄즈

이란, 시라즈



성탄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진흙 지붕만큼이나 두껍고 무거웠다.

이란의 시라즈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인 아내와 나는 우리만의 집회를 열고 성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회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읽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힘

을 얻고 있었으나 다른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성탄절이 되면 이러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우정이 더욱 그리워졌다.

밖은 어두웠다. 당나귀를 몰고 다니는 행상인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며 한 살짜리 제니는 곧히 잠을 자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앉아 있는데 부엌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와 그 정적을 깨뜨렸다.

아내는 문쪽으로 갔다. “아니 이게 무어니?”라고 아내는 깜짝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 아들이 부산하게 떠들며 질질거리고 웃으면서 약 2미터 정도되는 가늘고 키가 큰, 잎이 긴 소나무를 화분에 심어 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화분에는 크레이프페이퍼(조화 따위에 쓰이는 부드러운 종이)로 만든 테이프와 종이 사슬이 길게 주렁주렁 늘어뜨려져 마루 바닥까지 끌렸다. 그는 화분을 우리가 앉아 있던 긴 의자 앞에 놓고는 길게 늘어져 있는 사슬과 테이프를 끌어 모아 소나무 가지 위에 걸쳐 놓았으며, 소년의 어머니와 누나는 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흰색, 분홍색, 푸른색, 옅은 보라색의 종이를 만든 각종 테이프가 가지 위에 느슨하게 걸쳐 있고 초록색 종이 고리가 나무를 꾸불꾸불 감고 있었다. 그리고 가지 위에 점점이 솜이 붙어 있었다.

나는 “이거 참 예쁘지 않소?”라고 말했다.

아내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그래요, 정말 예뻐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기쁨이 충만해 넘치는, 미소가 깃든 침묵이었다. 우리 집 주인 가족은 유대인이었다.

기독교인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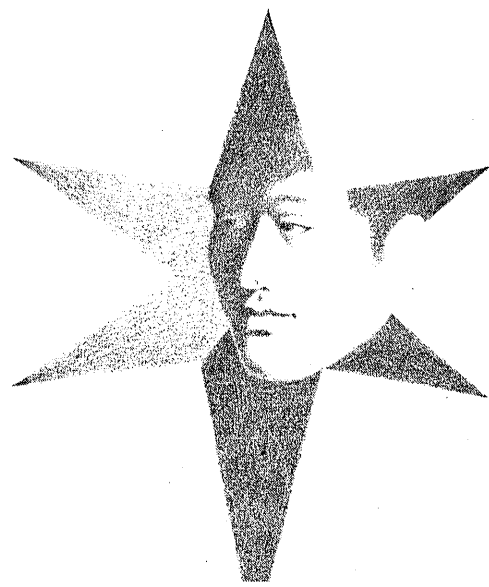
다까노리 엔도

일본, 동부 선교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급히 발걸음만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지만 13년전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처음으로 맞던 성탄절의 밤에는 눈길 밟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는 다시 멈춰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곤 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성탄절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 때만 해도 나는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한 선량한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엔도씨, 교회에 나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친구가 내가 결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새삼 놀라게 되었다.

나는 그 해에 기독교인으로서 첫 성탄절을 맞았으며, 눈이 오는 그날 밤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내 마음 속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후에 나는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우리가 네 아이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때면 나는 나의 친구로부터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생각하곤 한다.



나까지 개입 시키지는 마오

에드나 엠 조운스
영국, 레이세스터

“금년에는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보내기로 하지”라고 10년전 성탄절에 아빠는 나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한 번 달리 변화를 가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요. 우리는 해마다 친척과 함께 모여 보냈으니 한 번쯤 우리 가족끼리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애.”

나는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성탄절 만찬에서 홍차를 들지 않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해서 친척이나 친지들과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보다 간단히 가족만이 모여 보내는 성탄절이 한결 편하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막상 성탄 전야가 되자 나는 마음이 쓸쓸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이맘 때면 친척, 친지들이 모여 선물 포장에 벗기고 한편으로 부엌에서 일을 하고 해서 사람들로 붐비며 또 어떤 사람들은 남아 있는 선물을 급히 감추며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부산을 떨 때였다.

모든 선물이 이제 성탄수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음식도 이미 준비되었을 때였다. 그 전의 성탄 전야 같으면 우리 가족은 따뜻하게 웃을 입고 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갔을 것이다. 오늘 밤에도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자 하지나 않으실까?

물론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6주 전에 남편은 “당신 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구려 그렇지만 나까지 개입시키지는 마오. 그리고 당신의 새 친구들을 집에 불러 들이지도 말고”라고 말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칩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남편이 이것이 무관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남편이 조용히 성탄절을 보내고 싶어 한 이유가 나의 친척에게 나에게 관해 설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네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에는 교회에 안가세요?”

“나는 아이들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기로 했오”라고 남편이 대답했다.

성탄절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탄수를 만들자고 조르고 큰 아이가 그 성탄수 장식을 맡겠다고 떠들어 대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심심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큰 아이는 동생이 축구 놀이하러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인두와 철사로 열심히 성탄수를 장식하였다.

“엄마, 오늘 밤에도 선물을 받게 되나요?”라고 열 두 살짜리 아이가 물었다. “그럼 우린 늘 그래 왔잖니” 그날 밤에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과 기대 속에 각기 하나씩 선물 꾸러미를 좇아 들었다.

아빠는 “여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라고 하며 나의 무릎 위에 사각형으로 깨끗이 포장된 물건을 놓았다. 그 포장의 한쪽에는 장미꽃이 단정하게 달려 있었다. 아이들이 포장을 뜯고 상자에 든 물건을 보고 좋아하고 야단을 할 때까지도 나는 선물을 싼 포장지를 가만히 벗겨내고 있었다. 남편이 나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짙은 푸른색 표지로 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책명을 보는 순간 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책은 물론경이었다. 삽화가 있는 물론경이었다! 내가 나가는 교회의 주일학교 회원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고마와요. 그런데 이 책은 어디서 구하셨어요?”라고 나는 물었다.

“당신이 놓고 간 그 잡지에서 서리에 있는 서점의 주소를 알았지. 그래서 오후에 틈을 내서 그 서점을 찾아 돌아다녔오”라고 남편이 대답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오”라고 남편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 조운스 자매의 남편과 둘째 아들도 그후 곧 교회에 입교하였다. 지금은 전 가족이 모두 레이세스터 스테이크에서 활동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다. 圖





가족 극장 “한 아기의 탄생”

마벨 존스 개뿔 글

성탄절

성탄절 이야기를 가족에게 실감있게 전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낭독극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탄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가족 수에 따라 등장 인물을 늘일 수도 있고 소도구나 무대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야기를 간결하게 요약하거나 전개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요 셉 :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녀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음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피로의 기색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믿음을 초월하여 광채만이 빛날 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가이사의 법령으로 우리는 “베들레헴”이라 기록된 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몹시 지친 마리아의 쉼 곳은
마굿간 외에는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부인 :

방방에 모두 손님이 들어
빈 방이 없었습니다.
소란한 손님들 가운데 그녀에게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
다.
만삭이 된 그녀가
해산할 수 있는 조용한 방이 없었습니다.
나는 방을 내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으며
홍겨워 떠드는 소란 속에서도 그녀에게 평안을 주려 하

였으나

남편은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다행히 마굿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목 자 :

우리는 이곳 동산 위에 서있었지요.

우리는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떼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양들도 여느 때와는 그 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 빛이 충만해지더니

주님의 사자가 우리에게로 내려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우리가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 : 9-11)

만일 그곳에 나 혼자 밖에 없었더라면 그것이 꿈이 아니었는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허다한 천군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 : 14)

오, 나는 기쁘게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거룩한 아기, 구세주, 주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오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

이제 끝났습니다.

나의 피와 생명의 맥박이었던 이 아기를 잔직한 그 귀한 긴 열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가 누워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이를 믿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탄생이 다 하나의 작은 기적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탄생은 다시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 : 35)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같이 초라한 마굿간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낮은 자들 가운데서 있을 하나님 아들이 겪을 삶의 전조일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며 지혜있는 자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며

어린이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아기가 지금 조용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미 나의 힘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왕으로 받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 :

우리는 영광 중에 비쳐 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끝없는 우주에 활력을 넣어 주었습니다.

별이 동쪽으로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생각하고 찾은 끝에 폴락과 유향과 금을 구해 사막을 지나 예언대로 천국에서 오신 분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마 2 : 2)

그러나 헤롯은 아무 것도 모르는 채했습니다.

기적이니, 빛, 택함을 받으신 이에 대한 아무 것도 들은 바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제사장과 서기들이 우리가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헤롯은 “가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 2 : 8)

그 집에 가서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때에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꿈을 통해 헤롯왕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와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리라고 예언된 왕을 보았습니다.

갯보 자매는 바운티풀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1와드 주일학교 현임 역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

주는 것과 받는 것

로버트 제이 매튜스 글



성탄절이 가까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관습이 어디서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마 2:11)을 드린 데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고 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상이 없나니”(요한복음 10:11, 18; 15:13)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관습의 유래가 어떻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경전은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 가장 적절한 성구를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가르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라”(행 20:35)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경전의 다른 어떤 데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에게 우리는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의 모든 자녀에게 다정하시며 그들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9-11)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처럼 자비로이 주시니 우리도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도움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자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마 5:45)에게 내리심으로써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에 계신...아버지의 아들”(마 5:45)이 되기 위하여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6, 47)

야곱은 또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 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절하며, 너희 제물을 값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같이 부하게”하라고 가르쳤습니다.(야 2:17)

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간악한 자는 헌물을 바칠 때 애석한 마음으로 행함이라 그리하여 결국은 헌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헤아려져 하나님 앞에 간악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모로 7:8)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

고대 유대인들은 적의 압제에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는 가운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에 9:22)는 명을 받았습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 주신 수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모로 10:18)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에베소서 4:7)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린도후서 9:15)

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이라”(교리와 성약 6:13)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지만 이 지상의 생활이 끝나기까지는 그 은사를 충만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은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성신의 은사입니다. 니파이는 성신이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며, “부지런히 구하면 찾을 것이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신의 능력으로 ...알려질 것이요”(니일 10:17,19)라고 하셨습니다.

만유가 회복될 때 인간은 그가 이전에 준 것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식물들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 11:1) 엘마는 또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회복이란 악이 악으로 육욕은 육욕적인 것으로, 마귀의 것은 마귀의 것으로, 선은 선으로, 의로움은 의로움으로, 공의는 공의로, 자비는 자비로 되돌아감을 뜻함이니 “정녕 네가 행한 대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되리니, 회복은 죄인을 더욱 정죄할 것이요, 결코 죄를 정당하다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해와 비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고루 주어 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까지 즉 하나님의 큰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까지는 그와 같은 은사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더 12:6-22 참조) 이 세상에서 그 큰 은사를 충분히 알고서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또 다시 자신의 옛 장소로 돌아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선물을 주

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2-33) 더우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축복뿐만 아니라 징계와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는 모습을 달리 한 축복입니다. 욕은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노”(욥 2:10)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란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될 역경과 고난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쌓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며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브리서 12:5,6,10,11)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사와 그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성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당장에는 즐거운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기꺼이 훌륭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는 주되 주님에게는 드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말일성도들에게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성 64: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니파이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피흘리는 것으로 내게 제물로 하지 말지니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죄를 폐하라...또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니파이삼서 9:19-20)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죽은 짐승 제물에 비유하여 이를 잘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

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참조성구 요한복음 4:10; 베드로전서 4:10; 빌립보서 4:15; 야고보서 1:17; 모로나이서 10:8,17,30; 교리와 성약 46:매튜스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 교대 경전 담당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요셉 형제

칼 앨링튼 글

윌리엄 위티커 그림

이것이

요셉 스미스는 성실과 열의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큰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 극소수가 그를 증오했지만 대부분이 그를 사랑했다. 시골의 농군인 이 예언자를 만나고 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큰 능력과 다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덕성을 지닐 수도 있고 반면에 그의 원수들처럼 세속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요셉 형제는 시골 숲에서 가식없이 기도를 드린 것에서부터 갓은 박해 속에서 영감을 통한 번역과 병고침 투옥 등으로 연결된 삶을 살다가 1844년 카테이지 감옥에서 적의 흉탄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참으로 전무후무한 성역을 베푼 분이다.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복음은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우고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외관은 어떠했을까? 그는 어떠한 오락을 즐겼을까? 그는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떠했을까? 몇 매의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긴 하지만 그에 관한 설명이 예언자의 외관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요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와 가까이 지냈으며 성난 폭도들 가운데서나 그의 가족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항상 그의 곁에서 고락을 같이 한 팔리 피 프랫은 다음과 같이 예언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 대판장은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하였으며 힘이 세고 활동적이었다. 얼굴과 머리 색깔이 모두



밝았으며 턱수염은 거의 없었고 표정이 독특했다. ...온유하고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예지와 인자함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다. 가식이 없는 미소가 어린 얼굴에는 관심을 갖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으며 모든 압제나 꾸밈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인간 마음의 심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진지한 빛을 띄고 있었다. ...” (팔리 피 프랫의 자서전 [메저렛 출판사 1961] 45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그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지도력을 타고 난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는 숨김이 없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으며 영감에 찬 사람이었다. 요셉 스미스의 성품에 대한 글이 갈란드 턱케마이어가 쓴 출판되지 않은 논문에 실려 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대답했으며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박력있게 행동을 하려고 했다. 위험 앞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어떤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롭고 특별한 가능성을 느끼고 알았다. 그는 기존 질서를 중히 여기지 않고 천부적인 개혁과 쇄신의 정신으로 고귀한 일들을 이루어 왔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떠나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대한 사업의 기이한 업적

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했다.

그는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크고 중대한 면만을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친절하고 애정에 넘치는 면을 잊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 주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좀더 알 수 있다.

예언자의 일기와 편지와 서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동료들의 회고담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그 회고담은 예언자의 소망과 넘쳐 흐르는 영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교회 보관소에 있는 요셉 스미스의 문서는 그의 참다운 신앙심, 가족에 대한 사랑, 온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 그의 마음, 운동을 즐기는 면, 삶에 대한 풍취, 배움의 의욕, 베풀기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리처드 부쉬만이 예언자에 대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언자 요셉의 일기에는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보인 그의 신앙심이 잘 나타나 있다. 요셉의 설교는 예언적이며 신학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의 길을 닦았다. 그는 진리를 전하고 훈계하며 성역을 베푸는 반면, 기도로 용서를 빌고 마음의 화평을 갈구하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다. 다음에 나오는 일기문은 1830년대 초기에 그가 지닌 신앙적인 생활 태도를

잘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 어떤 글에는 매우 진박한 내용이 실려 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혜와 이해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간증이 그들의 마음에 인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요셉은 항상 자신에 넘쳐 있었으며 밝고 희망에 차 있었고 힘이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고통의 순간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오늘 저녁은 마음의 평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나의 마음은 지난 며칠보다 한결 가볍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유혹에서 구하소서” “매우 기분이 상쾌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나의 가족에 대해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이 있다.

요셉 스미스가 직접 쓴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의 일기에는 가족에 대해 염려하는 글이 수없이 나오며 그의 편지는 그의 자녀의 안부를 묻는 말로 채워져 있다. 그는 5개월 동안 육고를 치른 후에 “여보,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해주기 바라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 주시며, 폭도들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신다고 아이들에게 일러 주오”라고 편지를 썼다. 또 다른 편지에서 “나는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있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법도 가르쳤다. “아이들이 선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 바라오.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화를 내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오.” 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그려 본 것을 다른 한 편지에서 알 수 있다. “조셉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전해 주오. 아버지는 조셉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소. 그는 만형이니 동생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하오. 프레드릭에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 주오. 사랑스러운 애지. 줄리아도 참으로 귀여운 딸이요. 이 아이는 전도가 유망한 아이요. 우리 줄리아에게도 아버지를 잊지 말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일러 주오.”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랑하는 당신,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영원한 벗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오. 나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오.”

일찌기 교회에 가입한 한 개종자가 커틀랜드로 와서 처음 예언자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적었다.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시골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하러 커틀랜드로 왔을 때 요셉은 그 마차가 수없이와 닿을 때마다 나아가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고 다정하게 악수를 하였다. 군중 틈에 섞인 어린이와 유아를 빠짐없이 돌아 보고 손을 잡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절한 말과 축복을 전했다. 그는 친진난만하고 순결한 것을 사랑하였으며 그러한 것을 어린이들 가운데서 찾는 듯했다. (주버나일 인스트럭터 제27권 [1892] 24페이지)

1843년에 나부의 학교에 다니던 한 형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어느 날 아침에 예언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예언자가 나를 불러서 그에게로 갔다. 그는 나에게 학교에서 무슨 책

을 읽느냐고 물었다. 물론경을 읽는다고 대답하자 그는 매우 기뻐하는 듯했다.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학교에서 읽도록 물론경 한 권을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 선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선물이었다”(주버나일 인스트럭터 제27권 [1892] 24페이지)

복음 토론회 모임에 참석했던 한 소녀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그 당시 아주 어린 소녀였던 내가 모임에 참석해서 매우 피곤하여 졸자, 아빠는 나를 품에 안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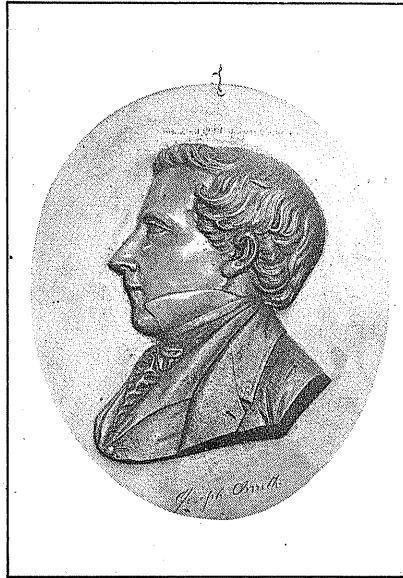
이때 요셉 형제는 하던 말씀을 그치고 나에게 와 허리를 굽히고 나의 두 발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 놓는 것이었다. 내가 발을 그의 무릎에서 내려놓으려 하자 그는 ‘아냐 괜찮아, 그래야 네가 더 편히 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청녀일지 16권 [1905] 558페이지)

마가렛 맥킨타이어 버지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어느날 아침에 그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목이 몹시 부어 올랐고 통증이 심했다. 예언자는 나를 안아 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성별된 기름을 붓고는 축복을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나았다.”

“또 한 번은 오빠와 함께 요셉 벽돌 공장을 지나 학교로 가고 있었다.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질었으며 우리가 걷는 길은 특별히 질었다. 오빠 윌러스와 나는 진흙에 발이 문혀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렇게 울면서 울려다 보니 어린이를 사랑하며 어린이의 친구가 되어 주던 예언자 요셉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지 않는가. 그는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높고 마른 땅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우리의 조그만 신발에 무겁게 달라 붙어 있는 진흙을 닦아 내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 자국이 난 우리의 얼굴을 닦아 주는 것이었다. 그는

요셉 형제



우리를 다정한 말로 달래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었다.”
(주버나일 인스트락터 제27권 [1892]
66-67페이지)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염려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느껴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씨름을 좋아했으며 나무 막대기 잡아당기기 시합을 자주 했다. 또 청소년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힘내기 경기를 즐겨 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그의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 받았으며 “지극히 비천하고 가난한 구의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친한 벗이었다.” 그는 다른 교회 역원들처럼 노동일도 많이 했다. 그의 일지에 보면 도랑을 파는 일, 여객의 집을 맨션 하우스에 날라다 주는 일, 사과를 따는 일, 집 정원의 흙을 파 가꾸는 일, 감자 밭을 팽이로 다듬는 일, 나무를 베는 일등이 기록되어 있다.

예언자가 소년 소녀에 대해 보인 관심에 대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여기서 [나부] 나는 소년 시절에 예언자 요셉을 알게 되었다. 예언자는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맨션에서 나와 우리들과 함께 야구 놀이를 했다. 요셉은 언제나 규칙에 따랐다. 그는 타자가 될 차례가 올 때까지 공을 받았다. 그는 매우 힘이 세었기 때문에 공을 쳐 휘두르면 공이 너무 멀리 날아가서 우리는 그 공을 잡으러 가는 아이에게 저녁 밥을 싸가지고 오라고 큰 소리로 놀렸고 예언자는 이 말을 듣고 웃곤 하였다. 요셉은 언제나 마음씨가 착하고 장난을 좋아하였다. 나는 그가 맨션 그의 사무실에서 양탄자 위에 앉아 나부 경관과 막대기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보았다.”(애로우트 해일, 자서전 23-24 페이지)

1831년,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를 만났던 에드윈 홀튼은 예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38년에 요셉은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육

의 운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 야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이 운동을 하다가 싫증이 나게 되면 예언자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불러 “우리 함께 통나무 집을 지어 보자”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청소년들은 미망인을 위해 통나무 집을 지어 주었다. 요셉은 늘 이런 방식을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서 사람들을 도왔다.” (주버나일 인스트럭터 제27권 [1892] 153페이지)

존 엘 스미스는 요셉 스미스가 그의 사촌 동생에게 보인 사랑하는 마음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44년 6월 예언자가 순교하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존 엘 스미스와 75명 나부 대대는 나부로 오라는 예언자의 명령을 받았다. 존 엘과 그의 동료들이 나부에서 수 킬로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었다. 그 때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몹시 험했다. 여덟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두가 도보로 행군을 해야 했다. 행군 도중에는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는 곳을 지나기도 했다.

존 엘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었다. “우리는 낮이 되어서야 나부에 도착하여 신전 가까이에 있는 포스터의 큰 벽돌 집 앞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야영 장비를 길 옆에 두었다. ...내가 짐을 감시하고 있는데, 예언자 요셉이 말을 타고 통나무 있는 데까지 와서 손을 내밀어 나를 잡고는 숙부와 숙모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나는 통나무 위에 발을 올려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타고 온 말을 옆으로 밀어 세워 놓고 나를 끌어당겨 통나무의 끝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나무 꺾질 위에 남은 핏자국을 보고는 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들판의 끝에 구두가 걸기 같기 쪼개 발이 상했지만 곧 낫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얼굴로 가져 간 손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

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사랑하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대대원들도 나와 같이 몸을 다쳤는지 물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는 대답했다. 예언자는 래스럼씨가 그의 상점 문을 들어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 사람들에게 단화를 신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래스럼씨는 ‘단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는 즉시 ‘그러면 장화를 신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나를 보더니 ‘자니, 군대가 무장을 해제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주지사의 보호 아래 카테이지로 가서 재판을 받게 돼’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몸을 숙여 기대고는 한 손은 나의 머리에 얹으면서 ‘두려워 할 건 없어 너는 이스라엘이 화평한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될 날을 꼭 보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에드윈 에프 패리저 요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 [테저렛 뉴우스 프레스사 1934] 126-28페이지)

“1837년 여름 어느날 저녁에 요셉과 나는 오하이오주 페인즈빌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마차를 타고 한 친구의 집에 들어가 저녁을 들었다.

우리가 저녁을 마치자마자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폭도들이 모인 것이었다. 노한 고함 소리와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요셉과 나를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우리가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피해 달아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폭도들은 우리가 피해 도망간 것을 알고는 말탄 사람을 보내 우리가 갔을 듯한 길을 따라 뒤쫓게 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파숫군을 세우고 온 마을을 찾아다녔다.

“요셉과 나는 큰 길을 따라 가지 않고 길에서 멀리 떨어진 숲과 늪으로 걸었다. 횃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

다. 나의 발걸음은 곧 늦어지기 시작했다. 병과 공포로 나는 남겨두고 피해 달아나 내가 폭도들에게 잡히게 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릎쓰고 나를 도와 같이 달아날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나를 들어 가볍게 어깨 위에 떠메고는 늪과 어둠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하길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앞에 외길이 나타났다. 곧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다. 요셉의 억센 힘이 그로 하여금 그같은 모험을 하게 하였다고 또한 나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다.” (같은 책)

팔리 프랫 형제는 오랫동안 함께 육고를 치르면서 예언자의 인간적이면서 영민한 영성을 보아 왔다. 그는 가족과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에 놓인 예언자를 보았으며 후에는 용감하고도 의욕에 찬 지도자인 예언자의 모습도 보았다. 그는 요셉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뛰어난 용기와 독립심의 소유자였다. 그의 태도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그는 잘못을 힐책할 때는 사자와도 같이 무서웠다. 그의 덕성은 대양처럼 넓고 예지는 온 우주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뛰어났다. 그의 말은 유려하면서도 독특했다. 교육으로 세련되거나 부드럽게 순화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거침이 없었고 주제나 태도도 매우 다양하였다.” (팔리 피 프랫의 자서전 45-46페이지)

요셉은 자신에 넘치면서도 한편으로 겸손한 마음씨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여서 철자도 곧잘 틀리게 썼다. 그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으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다.

그는 개척 시대의 배경을 거룩한 부름과 결합시켜 새로운 종교 시대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종교자였다. 圖

멜빈 제이 벨라드

약 력

벨라드 장로는 1873년 2월 9일 유타주 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헨리 벨라드였고 모친은 마가렛 맥닐 벨라드였습니다.

벨라드 장로의 부친은 39년간 로간 제2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습니다.

1896년에 이르러 교회는 정식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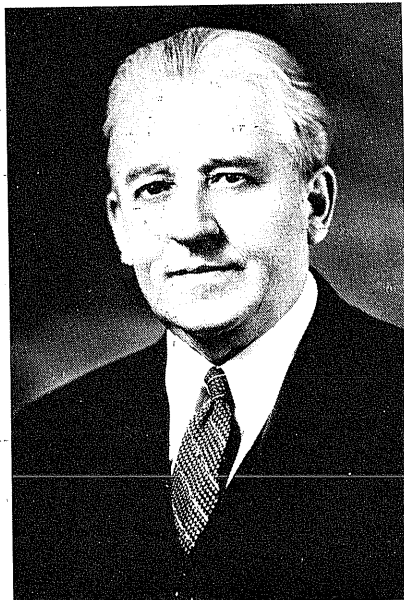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가 부름을 받아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멋진 태너 음성을 가진 조지 디 파이퍼와 바리톤인 멜빈 제이 벨라드와 올겐 연주자인 에드워드 피미드그리가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벨라드 장로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둔 북서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1909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1919년 1월 7일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성임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1925년 벨라드 장로는 남미 선교부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멜빈 조셉 벨라드 장로는 1939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아버지께 전해 드려라”

1884년 5월 18일 와드 회원들에게 신전 추천서를 발급해 주던 헨리 벨라드 감독님의 집(유타주 로간에 있었음) 밖에는 회원들이 줄을 지어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쾌하고 따듯한 날씨였으며, 헨리 감독의 아홉 살 난 딸인 엘렌은 집 밖 보도 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신사가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리 좀 오너라” 엘렌이 멈칫거리자 그 사람이 그녀를 가리키며 “바로 너 말이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신문을 건네 주면서 “이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돼. 빨리 가서 전해. 잃어버리지 않게.”라고 말했습니다.

헨리의 아내인 마가렛트가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엘렌이 뛰어 와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나는 아버지는 지금 바빠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 그 신문을 내게 주면 나중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딸 아이는 ‘안돼요, 신문은 아버지에게 직접 전하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 아이가 신문을 아버지에게 직접 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헨리는 즉각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신문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뉴베리 위크리 뉴스지로 태참교회 마당에서 발견된 헨리와 그의 부친의 친척 60명에 대한 이름과 제보 자료에 관한 어느 방랑자의 기록을 실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 왔을까요? 그는 엘렌에게 급히 묻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물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모두가 이웃을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는 낯선 두 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것은 여러 가지로 의문을 낳게 하나, 그보다도 더욱 이상한 일은 그 신문의 발행일이 1884년 5월 15일이었던 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날기 이전이었으므로 우편물이 영국에서 미국 서부까지 도착하는 데는 수 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단 3일 만에 대양에 날아 온 것입니다.

다음날 벨라드 감독은 신문을 가

지고 로잔 신전장인 메릴 장로를 찾아 가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었습니다. “벨라드 형제님, 세상을 떠나신 분 중에 빨리 대리사업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형제님께 신문이 전달되면 곧 의식이 행해지리라는 것을 알아 보낸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주님의 사자를 통해 신문을 받았으므로 형제님은 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벨라드 감독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에 열거된 모든 사람을 위해 신전에서 대리 침례와 엔도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 “방랑자”는 떠돌아 다니는 동안 현재에서 이 위대한 사업이 이미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연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나는 그가 희생한 사실도 압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증거해 준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밤 젊은 소년 소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어 자랑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며, 나는 그분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가 주신 축복을 무시할 수 없

고,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아가 무죄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신 사실을 압니다.

나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인디안 보호 구역인 포트 펙에서 인디안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문제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나는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 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나는 어느 방에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는 그방에 들어서는 순간 높이 들린 단 위에 내가 지금까지 보아 오고, 영원한 모든 세계에 존재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된 가장 영광스런 분이 제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앞으로 다가서자 그 분은 일어서시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수만 년을 더 산다 해도 그 자애로운 미소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팔로 나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셨으며 그의 가슴에 포근히 안고는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축복을 마치셨을 때 나는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대속주의 발에 나있는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만사를 손에 쥐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가진 느낌과 그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

과 내가 바라는 바와 내가 그때 체험한 느낌을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했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요 3 : 16 참조)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약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즉 이러한 모든 특권은 모두 거저 주어졌습니다. 나는 어느 위대한 작가가 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탄의 가게에서는 모든 것이 값지게 팔립니다. 하찮은 물건도 금값으로 팔립니다.” (제이 알 도웰, 론펠경의 통찰력)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대속과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 영적으로 배불리 먹어 “영원한 세상에서”(교성 135 : 55)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셨나를 종종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시면서 치루신 대가가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에게 잘 설명

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으며, 그를 다른 온갖 소유물 보다는도 귀하게 여겼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들을 얻어 기뻐하였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인 사라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아들 이삭이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희생의 제물이 바쳐질 지정된 곳을 향해 3일간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작별 인사를 고하는 이삭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브라함이 비통함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와 아들 이삭은 지정된 장소를 향해 3일간의 여행을 떠났으며, 이삭은 번제를 드릴 장작을 지고 갑니다. 이들을 따라 갔던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들이 산에 오를 때 그 밑에서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 아들은 “아버지 우리는 장작을 가지고 왔지요. 번제를 드릴 불은 준비가 되었는데 제물이 없지 않아요?”

“제물을 잊고 오셨군요”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전도가 유망한 어린 아들을 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만 “주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겠지”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 돌을 주어 모았고 그 위에다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은 손과 발이 묶여졌고, 제단 위에 무릎을 꿇고 앉혀졌습니다. 다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에게 작별 인사와 축복과 사랑을 주었을 것이며, 그의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의 아들에 대한 고뇌로 가득차 있었을 것입니다. 시퍼런 칼이 꺼내졌고, 높이 치켜져 생명의 피를 치솟게 하려는 찰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것으로 죽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시련을 겪으셔야 했으니, 이는 그분이 그의 손으로 독생자의 죽음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신명과 영광을 받는 위치에서 성실과 진실로써 그의 아들인 독생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흠모를 받을 수 있는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모욕과 비방과 “가시 면류관”(요 19:2)을 받으려 지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

기시옵소서”(눅 22:42)라고 부르짖으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고 애원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는 독생자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도움을 주기를 외면하겠습니까? 나는 수영을 조금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급류에 떠내려 가는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다는 이야기나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 뛰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는 불가피한 일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셨으며, 그의 아들을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들로부터 모욕을 받지 않게 아들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때도 아들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두명의 강도 틈에 달리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막 15:30-31)라는 조롱을 받았을 때도 아들을 구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끌려 가는 아들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는 잘보리산

에 오른 아들도 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도 보셨습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것도 보셨으며, 살이 찢기어 흘러 내리는 피도 보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 는 칼이 거두어지지 않았으며 뽑혀져서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 : 34)라고 외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통함과 고뇌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 보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죽어 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병실에서 쫓겨난 어머니처럼 죽어 가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의 광활한 우주의 일부에 자신을 감추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일지라도 그는 아들을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분이 그의 독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런 상황을 중단하시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고통을 참고 지켜 보셨으며 그를 우리의 구세주요 대속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전과 같은 상태로 남았

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영광된 상태로 들어가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시고 받으신 대가의 일부입니다.

“네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부르실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아닐까요? 나는 아들의 죽음을 몹시도 애석해 했던 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가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나의 희망이요 자랑인 내 아들을 내게서 데려 가셨습니까?” 그때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성령의 속삭임이 들려 왔습니다. “그는 네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었느니라. 나는 네가 그를 사랑하기 전부터 극진히 사랑하여 왔느니라. 네가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그를 다시 네게로 돌려 보내리라”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 1 : 21)라고만 말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뿐이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슬픔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 저를 잊지 마세요”

앨버타 신전의 신전장인 우드 형제는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이 우리가 지상의 신전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들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신전에서 어느 부모에게 자녀들의 인봉 의식을 집행하던 중에 그는 그곳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의 모든 자녀가 다 명단에 기록 되었나요?” 그녀는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집행하다가 중단하고는 모든 자녀가 다 기록 되었는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는 기록된 자녀 외에는 아이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의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또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자매님, 이 명단에서 빠진 아이가 있지는 않나요?”하고 재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어린 아이를 하나 잃었어요. 태어나서 얼마 후에 죽었답니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적지 않았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곧 이름이 주어졌고, 첫 아이였으므로 처음으로 호명되었고 모두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때 우드 신전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 인봉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빠진 사실이 발견될 때까지 매번 다시 묻곤 하였던 것입니다.



? 질문 과 대답



자녀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교육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까?

이문

다빌 졸링거, 브리감 영 대학교 아동 개발 담당 강사 :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열쇠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존경심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우리의 자녀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형제 자매로서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열심히 들어 주십시오. 만일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라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지금 일이 있어 어디를 가야 하니 나중에 남은 이야기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의 말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재능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고, 그에게 어떤 필요한 일을 맡기십시오. 일단 자녀에게 어떤 책임을 주었으면 설혹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그 일을 다 하도록 두십시오. 만일 딸에게 밥을 지으라고 했을 때 딸이 밥을 태우면 딸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다시는 재차 범하지 않도록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서 꾸지람을 하여 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자녀에게 그들의 조언과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오는 일이나 정원에 심을 나무나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놓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 그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해 보십시오.

4.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설명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생활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그밖의 다른 지도자들이 세운 표준의 범위 내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 한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시간을 내어 규율을 설명한다면, 자녀가 “맹목적인 순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규율 범위 내에서 행동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5.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녀의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6.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지도자를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서 감독님이나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그 아이나 감독 혹은 교사를 깎아내리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이 그 불평에 대해 논리적인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위에 소개된 방법은 자녀에게 자기 존중의 마음을 길러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녀 교육을 훌륭히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온다이—아만에 신전 부지가 헌납되었습니까? (교성 78: 15)

리랜드 젠트리 박사, 신학 연구원과 교과 과정 담당 : 아담—온다이—아만은 아담이 그의 후손을 다시 관리할 곳으로, 그리고 아담과 니파이의 제단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담—온다이—아만에 불과 몇 개월 밖에 있지 않았으나, 이 도시에 신전이 건립되기를 바랐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전 부지 헌납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히버 시 킴볼의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9페이지에 계속



세 가지 선물

엘런 언하트 모리슨 글

주더 케이프너 그림

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온 사람들은 천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후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세 가지 선물 즉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귀한 금의 황색 빛을 보았습니다. 금은 세계 도처에서 화폐나 값진 패물이나 그밖의 다른 가치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유향과 몰약은 어떤 것일까요?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귀할까요?

이 두 물질은 서로 비슷하며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나무에서 만들어지며, 또 향료와 향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기름부음 의식에도 사용됩니다.

유향은 세 가지 큰 나무에서 뽑은 향기로운 나무진(수지)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도 남아라비아, 소말릴랜드, 아시리아, 인도, 동인도제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스며 나오는 액을 받으면 그것이 수지입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조그만 고체 덩어리 수

지는 아직도 향료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 유향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유향은 그들에게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몰약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채배되는 키가 작고 덤불에 가시가 많은 나무에서 얻는 수지입니다.

나무 껍질과 목재는 향기로우며, 수지는 이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성경 시대에 약품과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무역을 통해 성지에 들어왔습니다.

고대 애굽인과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향기를 풍기는 몰약을 알고 있었으며 신전에서 이것을 태웠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지금도 몰약을 향료와 약품과 향수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지는 황색 또는 적갈색의 조그만 고체 덩어리로 제조업자에게 판매되며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며 강하고 짙은 향기를 발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성지까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빈 손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하고 소중하며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유향과 몰약과 금을 택한 것입니다. 圖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 관 장



대관장단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즐거운 성탄절이 곧 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이 기쁜 성탄절기를 맞아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은 목자들이 유대의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으니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구세주란 뜻을 갖는 특별한 이름인 예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시대를 통해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그 이름은 모두 그의 위대함과 그가 이루신 일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이름 가운데는 그리스도, 거룩한 이, 구속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교사, 메시아, 전능하신 이, 구세주 등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선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이러한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절기의 축복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곳입니다. 이 이야기도 성탄절 이야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숨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복음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않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선물을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도 않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충만한 복음은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여러분이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한해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여러분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큰 선물인 여러분 자신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성탄절의 행복한 느낌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우리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먼 첫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로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께 매우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의 성탄

성탄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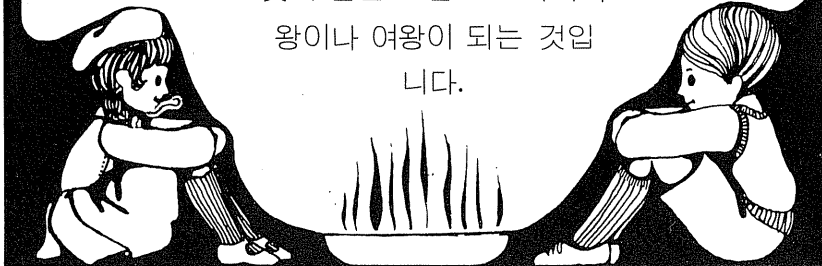
JOYEUX NOEL

프랑스에서는 1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물에 흠뻑 적신 밀을 접시 위에 올려 놓고 그 접시 위에 놓은 곡식이 썩어 트는 것을 보는 것이 그곳의 관습입니다. 그 곡식이 빨리 자라면 이듬 해는 풍년이 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거실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정경을 조그맣게 차려 놓는데 이것을 “크레이쉬”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찬송가와 성탄 축하를 부르며 자정이 지나면 굴과 소세지로 차린 특별한 정찬을 듭니다.

마지막 휴일인 12일 밤에는 12일 밤 케이크를 마련하는데 그 안에 강낭콩이나 도자기 모형의 하나 넣어 만

듭니다. 자기가 받은 케이크에 그것이 들면 그는 그 파티의 왕이나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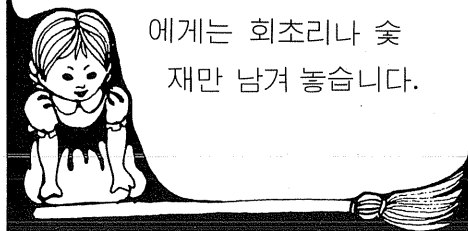
GLAD

덴마크에서 착한 조그만 가축을 기르 비스러운 일 만이 다락방에 볼 수 있음니 에 잠자리에 죽이든 다 돕니다. 거기에 놓 이 사라지고



BONN NAT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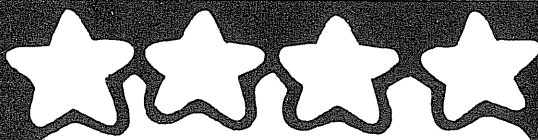
베파나는 12일 밤에 빗자루를 타고 이집 저집으로 날아다니는 이태리의 마음씨 고운 마법사 노파입니다. 이 노파는 착한 어린이들에게는 난로가에 선물을 남겨 두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성가시게 군 아이들에게는 회초리나 숯재만 남겨 놓습니다.



PRETTIGE KERST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은 거근과 건초를 넣고 그것을 물들 문지방에 나란히 올려 놓 것은 성탄 전야에 성 니콜라스입니다. 성 니콜라스는 착한 거근과 짚을 가져가고 다만 선물과 장난감을 넣어 주며 착하지 않은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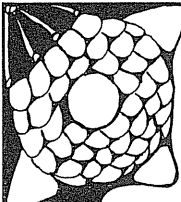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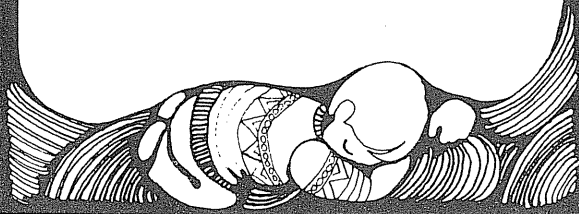


HAUSKAA JOULUA

핀란드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기 수주 전부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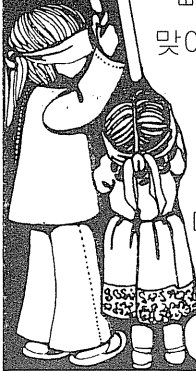
집 안에 짚으로 천정을 만들어 붙이며 여기에 종이 별을 매달아 장식합니다. 마루에도 밀짚을 쌓고 어린이들은 구유와 같이 생긴 침대에서 자며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때를 마음에 새깁니다. 가족은 성탄 전야에 친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일찍 돌아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선물을 놓고 갔는지 보라고 조릅니다.



FELIZ NAVIDAD

멕시코에서는 성탄절이 가까와 오면 들보에 비나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비나따란 토기 접시로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안에는 과일과 과자와 호두와 조그만 장난감을 넣어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보자기로 눈을 가리고 차례로 긴 막대기로 그 비나따를 맞추어 때립니다. 비나따가 막대기에 맞아 깨어져 그 속에 든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면 아이들이 모두 물건을 줍습니다. 성탄 전야에 어린이들은 그들의 신을 창문이나 침대의 발쪽에 놓아 둡니다. 그들이 착한 어린이였다면 다음날 아침에 그들의 신발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가는 길에 놓아 둔 선물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KALA HRYSTOUGHENA

그리스에서는 옛날부터 하나의 관습으로 어머니들이 어린이가 궁금하게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기름에 튀긴 과자를 만듭니다. 성탄절은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와 전설을 듣는 시간입니다. 12월 25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입니다.



FROEHLICHE WEIHNACHTEN

탄넨바움이라고 불리우는 성탄수는 독일의 성탄절의 명물입니다. 성탄수의 장식은 비밀히 진행되어 성탄 전야에 비로소 불을 켜 가족을 놀라게 합니다.

독일의 성탄절기는 12월6일부터 1월6일까지 계속됩니다. 산타클로스도 12월6일에 오셔서 착한 어린이에게 사탕, 나무 열매, 과자 등을 주고 갑니다.

1월 6일 저녁, 성탄수를 치운 다음에 그룹은 “별 노래 행진”을 합니다. 긴 장대에 별을 매달아 한 사람이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호롱불을 들고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마을을 걸어 가다가 때때로 멈춰 서서 캐롤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별 노래 행진은 어린 그리스도를 찾으러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던 동방 박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GLEDELIG JUL

노르웨이에서는 오랜 전통에 따라 교회에서 종을 울려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 전야에 교회에 나오도록 알립니다. 동물과 새를 기억하는 스칸디나비아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도 해마다 성탄절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농장의 가축을 잘 보살피며 암소에게는 특별히 건초를 많이 줍니다. 긴 장대 끝에 밀짚단을 올려 마당에 세워 놓고 새들이 쪼아 먹게 합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지붕 꼭대기나 문에는 새들의 성탄절 식사를 위한 곡식 알을 마련하여 놓습니다. 가족의 성탄 만찬을 준비할 때에는 성탄절 죽 안에 감복송아를 넣습니다. 감복송아가 든 죽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선물을 받는 행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툼트 코르젠

툼트 코르젠은 스웨덴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바구니를 일컫는 말이다. 이 작은 종이 바구니에는 튀긴 옥수수와 과자와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며, 이 바구니를 성탄수에 매달아 놓는다. 성탄절에 손님이 찾아오면 즐거운 성탄절의 인사로 그 바구니를 하나 선사한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색의 공작지와 자와 가위와 큰 단추 하나를 준비한다.

공작지를 폭 9센티, 길이 26센티가 되게 자른다. 이렇게 자른 종이의 중앙에 이등분선을 긋고 이 선에 따라 종이를 접는다.(그림 “가” 참조) 접힌 종이의 각 끝에서 25센티 되는 곳에 경계선 표시를 해 둔다. 접힌 부분에서 종이의 끝쪽으로 1 1/2센티 간격으로 선을 긋고 이 선에 따라 종이를 자른다. 이 때는 이중으로 접은 채로 자른다. (그림 “나” 참조) 종이를 펴보면 일곱 개의 줄이 생길 것이다.

종이를 다시 접어 종이를 서로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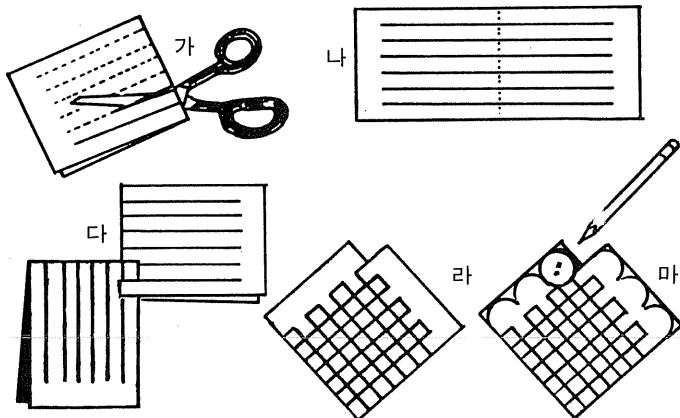
짤 수 있도록 한다. 접은 종이 두 장을 함께 물린다. (그림 “다” 참조)

두 종이를 서로 엮어 짜기 위해서는 색종이의 한쪽 끝 조각을 흰 종이 첫째 조각 사이에 끼워 넣는다. 다음에는 반대로 흰 종이의 두번째 조각을 색종이에 끼워 넣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간다.

둘째 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흰 종이 첫번째 조각을 색종이의 다음 조각의 접은 사이로 밀어 넣고 그 색종이 조각을 다음 흰 종이 조각 접은 사이로 밀어 넣는다. 둘째 열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 두 단계를 끝까지 계속해서 바구니를 완성한다. (그림 “라” 참조) 엮지 않은 남은 부분은 단추를 이용해서 반

그림 “마”와 같이 그려 오린 바구니의 양 안쪽에 1센티×23센티의 종이를 풀로 붙여 손잡이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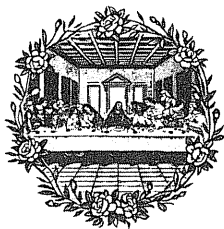
20페이지 계속

“우리는 그곳에 있는 동안 높은 지대에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건물의 네 모퉁이가 될 곳에 말뚝을 박아 두었습니다. 브리감 영 형제가 이곳의 헌납 기도를 했습니다. 이 헌납식에는 300-500명의 형제들이 각기 총을 소지한 채 참석했습니다. 이 땅은 그랜드 리버보다 약 75-150미터 더 높아 그곳에 서면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히버 시 김볼의 생애에서 올슨 에프 휘트니가 인용한 말, 북크래프트사 1967, 209페이지)

아담—온다이—아만에 대한 설계도가 최소한 2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된 것은 최초로 부지 답사를 하고 그린 것으로 거기에는 도시 북쪽에 두 불룩에 해당하는 광장이 나와 있으나 신전 부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 다. 최근 세인트 조지 신전에 있는 옛 서류 속에서 발견된 두 번째 것은 대장 손으로 그린 지도인데 여기에는 신전 위치와 옛날에 주민들이 살던 곳, 그리고 다른 중요한 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은 1838년 불과 수개월간 이곳에 머물고는 비회원들의 박해로 강제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도 겨우 몇 채의 집이 건축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미조리주 데이비스군에 있는 그 지역은 다시 농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십일조를 바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십일조를 계산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

우리는 물문경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기록을 보고 고대에도 십일조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율법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인 1838년 7월 18일에 미조리주 파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계시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 교리와 성약 119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을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대관장단에서는 1970년 3월 19일자로 “합당한 십일조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와드의 감독 및 지부장에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의 지침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결한 말쑤으로 항상 같은 대답을 주어 왔습니다. 즉 교회 회원들은 모든 수입의 십분지 일을 해마다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말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입고 있는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십일조를 얼마로 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감독님과 십일조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각 회원은 자기가 십일조를 완전히 바치는지 일부만 바치는지 전혀 바치지 않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일조를 바친다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감독은 십일조를 받아 계산을 해야 할 책임을 진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은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8-10)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할 수 있을 때 평화롭고 평온한 느낌을 갖게 되며 자신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바에 기초를 두어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마지막 순간

예수는 그리스시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

지금부터 약 2,000년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베다니란 작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 가운데 3년간 성역을 베푼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의연히 예루살렘성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를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악마로, 또는 유대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고대의 도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든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가르친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

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1:55-56)

유대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기념일인 이 날에 모든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회회의 회원들은 공공연히 예수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만하고 허세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유월절의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마 21: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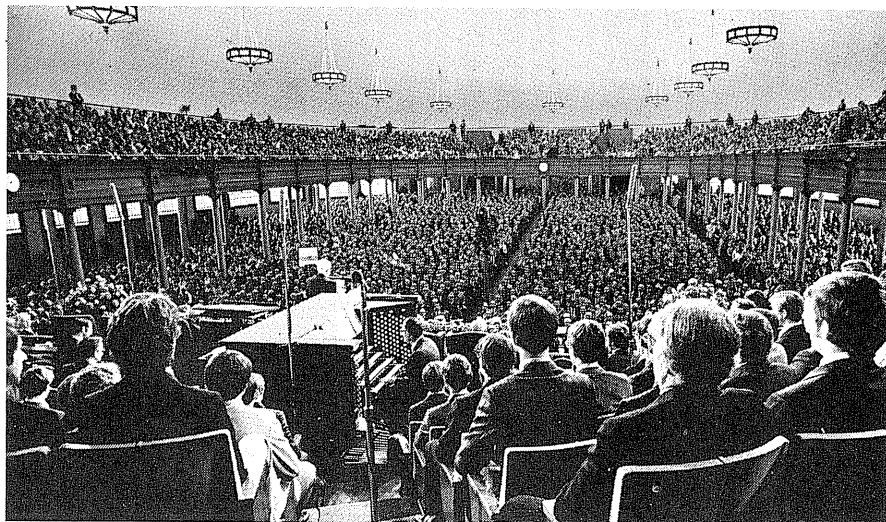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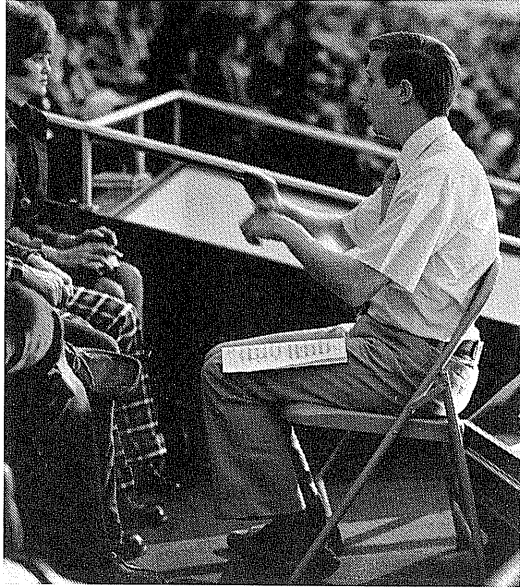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이 일이 바로 예언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언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다려 온 왕의 개선 입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중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예수는 임금과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은 이 성으로 다가가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밋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버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누가복음 19:43-44)

예수는 또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알곡이 죽어야 하는 비유와 아버지가 보내 자기집 포도원으로 갔으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그가 진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12:27)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육신으로서의 생애가 차차 희미하여 사라져 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그의 적은 그를 대적하여 하나로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라고 말했습니다.

간교한 그의 적들은 예수의 말에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정치와 랍비의 율법에 관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과 헤롯왕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악의에 찬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마태복음 22:16-17) 만일 그가 바쳐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압박을 받아 허덕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조상을 배신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며, 반면에 바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당장에 정치범으로 체포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세금을 바칠 때 사용되는 동전을 하나 보여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 동전을 손에 들고 그를 덮어 걸러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이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마 22:20-21) 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으니 이것은 그의 것인즉 그것을 그에게 도로 돌려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압제자들의 음모를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예수님이 구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악함에도 그들을 위해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과 그밖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마 22:21-22)

조금 후에 한 율법사가 와서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마 22:36)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율법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서로 배치되는 듯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토론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마디의 말씀으로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다음과 같이 서로 나뉘인 여러 율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3:27-39)

예수님은 역시 악의와 질투와 간교한 거짓으로 충만한 질문에 사랑과 높은 뜻이 담긴 대답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군중을 떠나 오직 그의 제자들을

더욱 가르쳐 강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가 말일에 다시 세상에 돌아오기 전에 환란과 배도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먼 훗날 먼 나라에서 그의 종들과 함께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대업에 쏟은 그들의 노력을 헤아려 볼 것임을 말했습니다. 또 목자는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의 양을 염소와 구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을 맞는 처녀와 그들이 예상한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아 기름을 다 써버린 처녀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잠 못 이루는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찬 생각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현재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시간이 가까와오자 열 두 사도와 함께 조용하고 은밀한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겔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찬 채 사도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써 그의 특별한 증인들을 악한 자의 함정에 걸리지 않게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이같은 사랑과 단결의 표시는 그 후에 있는 유월절 만찬의 적절한 전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심 깊은 자녀들의 만아들이 애굽 바로왕이 내린 파멸령에서 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성은 이 유월절을 상징적인 표시와 행동으로 기념해 왔습니다.

안전히 보존해 주신다는 고대에 맺은 성약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안전을 위한 새 성약의 상징물로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적합한 일입니까. 그는 떡을 떼어 놓고 잔을 들어 이를 축복하면서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성약에 새로운 계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에 그의 영의 숭고함과 큰 힘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현재와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알고 있었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은 그들에게 필요할 것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교리로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위로와 계명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알고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요 14장, 15장 참조)

그날 밤 작은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말할 수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떼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장 참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이같은 중대한 기도를 드린 후에 혼자서 육과 영의 고통을 받으려 나아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그 고통은 한정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사탄이 주는 모든 공포와 맞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즉 아

담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제임스 이 탈매지 저 예수 그리스도, 데저렛 출판사, 1962, 613페이지)

그 후 그가 허위 고발로 불법 재판관을 받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흘만에 일어나시고 무덤은 다시 불과 세상 사람들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신 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오늘날의 바쁘고 복잡한 세상사와 견주어 볼 때 주님의 생애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세상의 오만과 위세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가난과 겸허와 단순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성품을 지니고 생활하셨습니다. 그의 생활이나 가르침에는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즉 당시에 그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나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그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유월절기에 접어들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영적인 탐구와 의로운 삶으로 주
님의 계시를 이해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웃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몸
니 부대장님께서 성신을 주재
로 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
해 주셨을 때,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새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를 지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권능을 가진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은 그 계시가 예언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총 관리 역원이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지역 지도자들로

부터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더욱 밝은 빛과 깊은 지식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 롬니 형제가 말씀하신 그 계통을 통해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계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예언자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과 그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사정에 대한 성스러운 역사를 함께 묶어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책인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의 다른 경전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어디서 그러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이 책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고매의 예언자들이 준비한 기록을 우림과 둠임을 통해 번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현과 하나님이 계시한 곳에서 온 천사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언자가 주님과 직접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설명을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성경 시대에 확실히 있었던 계시가 오늘날에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져 보고 시험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러한 경전이 참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들을 접할 때 몇 년 전에 휴 니블리 박사가 쓴 한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여기서 일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들에 나가 땅을 갈다가 금강을 하나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돌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내어 보였으며 모두가 각기 조금씩 떼어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몇 가지 유명한 사례 연구의 자료를 들면서 그 젊은이는 흔히 알려진 망상증에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학자는 그곳에서 금강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금강석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질학자는 그 지역에는 금강석이 나지 않으며 석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석영이라는 지질학자의 말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 돌을 직접 조사해 보라는 청을 받았을 때 그 지질학자는 피곤한 듯이 웃음을 띄우며 조용히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한 영문학자는 그 젊은이가 그 돌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깎지 않은 금강석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과 완전히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당시에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4개의 대도시에서 있는 원예사 177명 중에 단 3명 그 돌이 금강석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성직자는 그 돌을 발견한 것이 그 젊은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마침내 한 가난한 보석상이...그 돌이 진짜 금강석인지 아닌지는 감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누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는지 혹 누가 그를 믿으며, 그가 금강석과 벽돌을 구별할 줄 아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금강석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사람들이 석영이나 유리를 금강석으로 잘못 안 일이 있었는지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석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잘 알려진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해 했습니다. 금강석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짜 금강석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너무 중대하게 다룸으로써 자기의 권위나 명성을 해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만들어진 나쁜 인상을 숨기기 위해 어떤 사람은 그 돌은 인간이 매우 기술적으로 만든 금강석이라는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돌은 진짜와 꼭 같은 가짜 금강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사꾼인 그 소년이 진짜 금강석을 발견한 것보다 합성 인조 금강석을 만든다는 것은 더 큰 업적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사막의 리하이와 야렛인의 세계, 북크래프트사 1952년, 136-37페이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그 경전을 어떤 곳에서 받았습니까. 오랜 동안 그 경전의 출처에 대해 많은 설명과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대부분은 이 책을 많이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가 그 책들을 지었으며 출판해 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스미스는 마땅히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론은 요셉 스미스에게 너무 큰 명예를 주고 사실보다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요셉 스미스를 전무후무한 천재로 만들 때 문에 나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가 그같은 천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무 도움도 영감도 받지 않고 경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전은 요셉 스미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같은 일을 제의하면 고대의 예언자나 오늘날의 예언자처럼 보통 인간입니다.

이 제시의 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처음 그 경전이 출판되었을 때의 내용과 현재 출판된 책의 내용에서 달라진 성구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제시를 말하는 것처럼 그 성구의 변경된 부분을 들추어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만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변경되고 수정된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 사람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함당하고 바르게 살펴 검토하게 되면 그와 같은 교정 부분이 오히려 그 책의 진실함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원본을 읽어보면 철자와 문법과 표현에서 오류와 세련되지 못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주어진 예시가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고 해서 기적적인 이 사건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완성시킬 때에 경전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경전에서서의 그같은 성구 변경은 기본적으로 문법과 표현과 구둑점과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 다듬은 것뿐임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단상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은 너무 미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 책들이 참되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대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제시의 기록을 편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라. 비록 우리는 파오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아시는지라, 비난하는 자로 저

희가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알게 하라”(몰 8 : 18)

“또한 이 기록을 받고 나서 이의 완전하지 아니함을 비난하지 않는 자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몰 8 : 12)

어떤 둘의 성질을 알려면 시험을 해보아야만 그것이 점판암인지 사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거친 후에야 그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금강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이 정확할지라도 금강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감정을 해도 그 진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 가지의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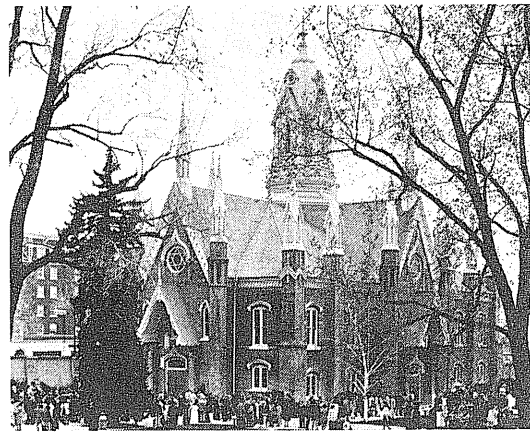
오직 올바른 방법을 택해야만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것이 금강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은 무용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갖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제시를 알아 보는 일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각 방법은 다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 : 14)

우리가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이 경전이라는 금강석은 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된 금강석이 진품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금강석을 잘 알려진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듯이 경전도 잘 알려진 시험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야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자세에서 영적인 탐구의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전을 탐구할 때 별로 성의를 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성실한 태도로 경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며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일 열성을 기울이지 않고 탐구하거나 사소한 호기심으로 탐구를 하거나 또는 의도는 좋았으나 일시적으로 탐구를 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광신적인 태도로 탐구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탐구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많은 요소들은 일생토록 준비한 뒤에만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간증은 매우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겸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버이 생각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과학 분야에서 얻는 지식보다 차원이 높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탐구와 의로운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간증을 할 때 그가 학식을 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간증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많은 학문의 대가들이 영적으로는 부진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학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허약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난파된 배의 선원이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생활이 무절제하거나 불손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의 간증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진리를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 있는 자들의 마음 한복판을 찌를지니, 이 진리를 심하다 이를지니라”(니일 16:2)

이 고대 예언자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그가 “기록으로는 말할 때처럼 힘찬 무엇을 전하지 못하니 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 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 “그러나 보라 성령을 거역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한 자가 많으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저들은 기록된 많은 것을 던져 버리며, 이를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도다”(나이 33:1-2)

그는 계속해서 그가 기록한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여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도록 권고함이라

“간결한 진리의 뜻을 쫓아 죄를 엄하게 다스렸음에 악마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결코 내가 기록한 것으로 하여 성내지 아니하리라”(나이 33:4-5)

신약전서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공회의 판결

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천사에 의해 풀려났으며 재차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행 5:32)

공회의 몇몇 재판관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으나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행 5:34, 35)라고 현명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설교자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행 5:37-39)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지금까지 받아 기록된 계시가 다시 책으로 출판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라는 말씀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과 약속을 말해 주는 교리와 성약의 성구 한 귀절을 결론으로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하게 뜻과 마음과 몸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만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교성 88:6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는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계시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총관리 역원 중 열 다섯 사람은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고 지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권세이며, 우리는 모두 구함으로써 이 금강석이 모조품이 아닌 참 금강석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圖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구세주의 영역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써 그의 사랑을 보답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구
세주께서는 “보라 나는 선
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삼 11:10)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
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그의 성
역과 가르침과 기적과 대속의 희
생과 부활과 영원한 영광에로의
승천에 관하여는 수많은 사람이
적었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진
실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
시며,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이십
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

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
니요”(요 6:38)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세상에 성역
을 베푸는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
금 영생을 얻어 그와 하나님 아버
지의 면전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행한 많
은 이적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아
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의 대속
의 희생과 생명을 버리신 일은 그
의 인류에 대한 크신 사랑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우리의 친구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공부를 통
해 구세주를 알고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저는 아이와 소
경과 눈먼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인 군중 가운데 여러분 자신
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넘
쳐 흐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예수님 또한 그들에 대
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위
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감
동을 주었을 때 그들은 기쁨의 눈
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 대한 사랑
과 자비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둘러 보시고 “너
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
로 데려 오라. 너희 가운데 절름
발이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

는 자와 수족을 못쓰게 된 자와 문
둥병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
린 자와 귀머거리 등 온갖 질병으
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
들을 내게로 데려 오라. 내가 저
들을 고쳐 주리니...

“...너희에게 병고침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있음을 알았음이라.”
(니삼 17:7-8)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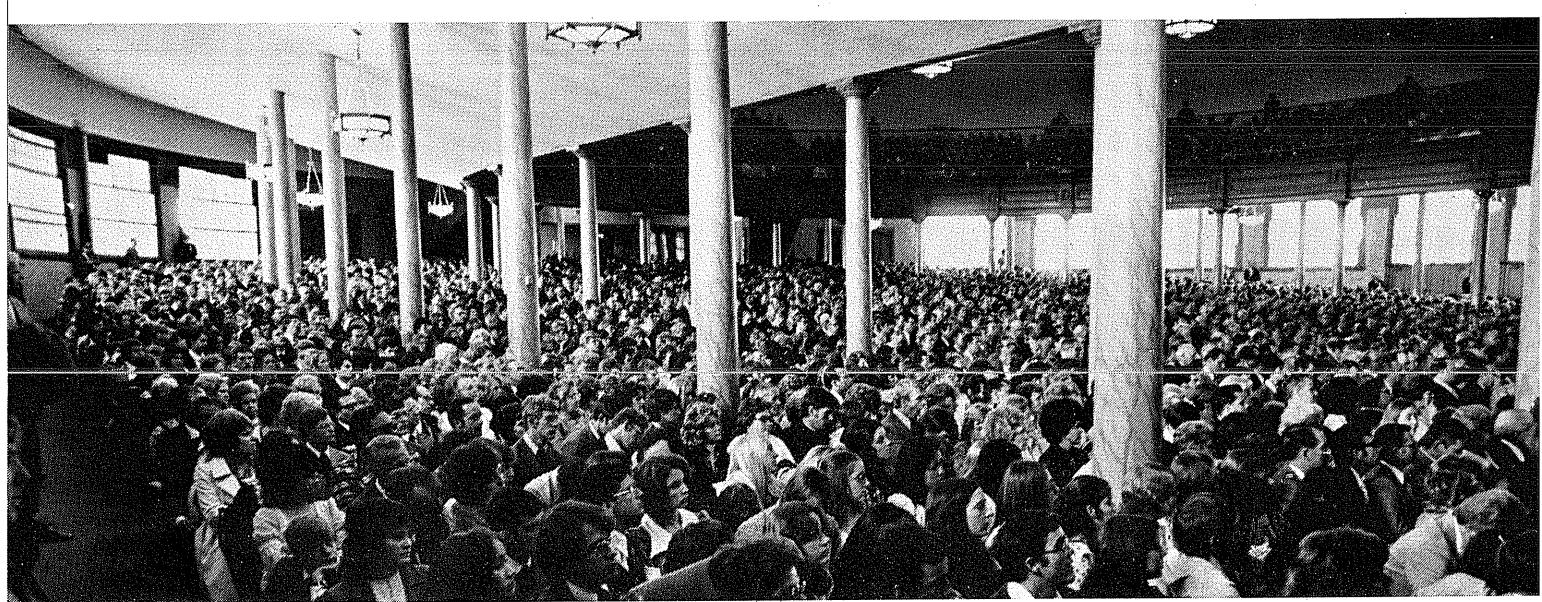
온 무리는 모두 병든 자와 고난
을 당하는 자와 절름발이와 장님
과 병어리와 온갖 질병으로 고난
을 당하는 자를 데려 왔으며, 예
수께서는 그들을 낱알이 고쳐 주
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나 성한
자들이 모두 예수의 발 아래 엎드
려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니삼 17:10 참조)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주위에 있
는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
리와 함께 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
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
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
히 크고 놀라왔던지라, 아무도 이
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
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
당할 수 없었느니라 “예수께서 아
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
어서시었으며 무리가 큰 기쁨에 취
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여 일어
서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거
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
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
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
시니,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



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니삼 17 : 17-22)

우리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선량하고 충직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크신 사랑을 느낍니까?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서는 기도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삼 18 : 19, 21)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어린이를 축복하였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어 그러한 영적 영향으로 가족이 사랑과 조화 가운데 더욱 결속하게 해줍니다.

또 한 성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니삼 17 : 20)

우리가 회개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 (니삼 9 : 23)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저들을 이같이 침례하라...” (니삼 11 : 23)

구세주의 대속의 희생을 뜻있게 하는 회개, 용서, 영생의 기회가 곧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준비된 것이라 구원과, 인간의 구속

이나 멸망과 비참이 모두 이같이 역사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와서 생명의 물을 거저 얻을 수 있으며, 오지 않겠다는 자를 강제함이 없으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저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되리라”(엘마서 42 : 26-27)

위의 성구를 바꾸어 말한다면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한 것이 회복될 것이요, 악한 일을 하면 피해가 그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베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고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너희가 입으로는 의를 안다고 하며,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불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으

나 부르는 소리에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타락의 길로 빛나간 자들아”(엘마서 5:37)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죄진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셨고 인간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을 완전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이시여,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에 저는 한 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바친다 해도 주님의 복음을 주는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죄사함을 얻었거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한 너희를 대함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장차 오실 이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또한 너희를 지으신 이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게 되리니,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흠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 (모 4:11-15) 우리는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때때로 시련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마 11:28-29)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또한 끝이라.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

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니파이삼서 9:19,21)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3)

지금은 이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합당하게 준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영적인 성장을 버리고 그 대신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임무, 모든 과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생각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의 영은 결코 죽지 않으며 생명은 육신의 세상을 넘어서 계속됩니다. 간증드리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듯이 이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지지하고 받들고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성실히 지켜 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간증의 힘

신앙과 인내로 뭉쳐진 간증은
승영을 가져다 줌

하트만 렉터 이세
철십인 제일 정원회

예 우리는 이 놀라운 영
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대
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
관장님을 지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필요합
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의 기본 원리
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한 대답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
는 간증의 중요성을 간결한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즉 예수님
이 돌아가셔서 사흘만에 부활하셨
으며 승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사
도와 예언자의 간증입니다. 기타
우리 종교와 관련된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이 간증에 부속되는 것
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
르침 121페이지)

간증이란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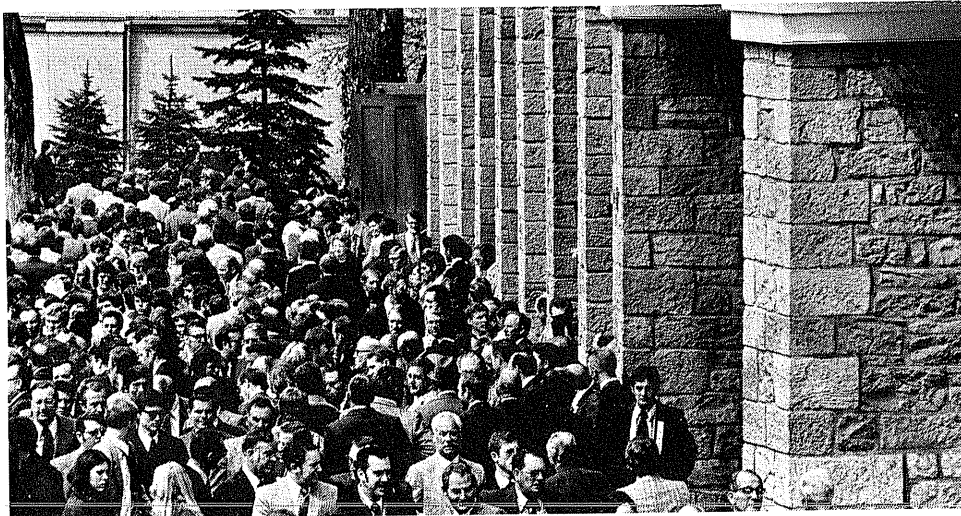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신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복음
의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창조자와 교통하고자 하
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간증
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은 지극히
중요하고 참다운 영적 성장의 시
초이기는 하지만 간증만으로써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반
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간증이 완
전한 개종을 뜻한다고 잘못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증
을 신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
다. 우리는 강한 간증을 가졌다는
뜻으로 “그 사람은 강한 신앙을 가
졌다.” 또는 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으로 “그 사람의 간증은 대
단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과 간증이 항상 같은 뜻을 지
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앙
은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
라는 소망입니다. (앨마서 32:21
참조) 간증은 계시로 알려진 지식
입니다.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참된 것을 증거하는 것과 관
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
기하는 간증 중에 많은 것들은 참
의미에서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
것은 감사의 말이나 표시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간증은 아
닙니다. 간증은 성신으로부터 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요한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이
라 간증했습니다. 이 빛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인간에
게 간증을 얻도록 도와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가 그
리스도라는 간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받
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군의
1/3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야고
보서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
니라”(약 2:19)는 말씀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습
니까? 그들도 사실 예수가 그리
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간증
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베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
버지시니라”(마 16:17)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



협을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조금 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 22 : 32)고 이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간증이나 지식이 그로 하여금 구세주를 부인하지 못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가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 다.

우리는, 돌이킬 때에,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지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개종의 참다운 표적의 하나입니다.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말틴 해리스, 데이비드 휘트머, 올리버 카우드리(물몬경의 세 목격자)와 토마스 비 마쉬(초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같은 사람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름부은 종을 지지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종은 변화를 뜻합니다. 베냐민 왕은 개종이란 이기적이고 거짓이 많고 인내심이 없으며 무절제하고 반항심이 많은 속성의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

듯 기꺼이 순종”(모 3 : 19)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이 점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예수님은 헌신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쫓아 행하려는 자는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돌이킨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계시를 받는 일은 드물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권능을 가진 종을 통하여 그의 뜻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대관장,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부장, 감독, 지부장 등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종들을 의로운 마음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돌이킨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종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개종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들추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드뭅니다. 대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씀할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변화 산상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820년 뉴욕주 팔마이라 근



교 숲속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기록도 있습니다. 물몬경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몬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다...어떤 다른 책의 가르침 보다 이 책의 교리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간증한 책입니다. (교회 정사 제4권 461페이지)

다음에 인용하는 성구는 예수님이 “모든 의”(마 3 : 15)를 이루기 위해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했던 필요성을 설명한 예언자 니파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순종함을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니

“이는 또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곧고, 들어가야 할 문이 협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저들 앞에 본이 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니이 31 : 6-7, 9-10)

또 니파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버지의 계명을 즐겨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니이 31 : 10)라고 묻

고 아버지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성신을 주시리라, 너희는 나를 따르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 하셨으니”(니이 31:11-12)

또 니파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즐거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물의 침례로 아버지께 증거하여,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새로운 방언 곧 천사의 방언까지 말할 수 있게 된 연후에 진실로 이렇게 된 연후에 나를 부인할진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보다 낫지 아니하리라...” (니파이서서 31:15)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말씀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진정한 개종의 표적은 인내입니다. 오직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만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허락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헐뜯거나 거역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의 비밀에 관한 하나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책하거나 교회를 헐뜯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비록 옳고 또 확실히 알고 그같은 말을 했



다 하더라도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배도하게 된다는 것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온 원리입니다.”(교회 정사 제3권 385페이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중을 지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고의적인 저항이며 그 권능을 무시하는 반역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역은 순종의 반대 의미를 지닌 말로써 이로 인해 왕국에서 쫓겨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루시퍼도 이같이 하여 왕국에서 쫓겨 났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께서 그의 앞에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거나 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빛에 순종치 않고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거역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만일 그들이 반역

하는 자에게는 모두 주님의 진노의 불길이 불고(교성 63:2 참조) 저들이 슬픔으로 찢림을 받으며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교성 1:3 참조)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 동안에 돌이키는 자는 성공할 것입니다. 왕국은 우리의 신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다니엘이 본 돌 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뜨인 돌이 산에서 거센 속도로 굴러 내려간 그 돌입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승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패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패한 자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웠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에는 큰 차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주님은 결코 패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왕국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행한다면 그와 더불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니삼 31 : 15)라는 말씀은 틀림없이 지켜질 약속입니다.

간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구력과 인내가 있는 신앙과, 마음의 돌이킴이 따르는 간증이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리인이니, 주의 심부름하는 자라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니라”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 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배반한 자는 시온의 땅에서 잘리워 추방당하며 땅을 상속받지 못

하리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배반하는 자는 에브라임의 혈통이 아니니, 따라서 뽑히우리라”

“보라, 나 주는 말일에 나의 교회를 세워 산 곧 높은 곳에 앉아 여러 국민을 심판하는 심판관 같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는 시온의 주민이 시온에 속한 모든 일을 심판할 것임이라”

“또 저들이 거짓말하는 자와 위선자에게 증언하리니, 사도와 예언자가 아닌 자들은 그 정체가 드러나리라”

“재판관인 감독이나 보좌라 할지라도 저가 받은 청지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아 다른 자가 그 위치에 놓이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번성하며 주의 영광은 시온 위에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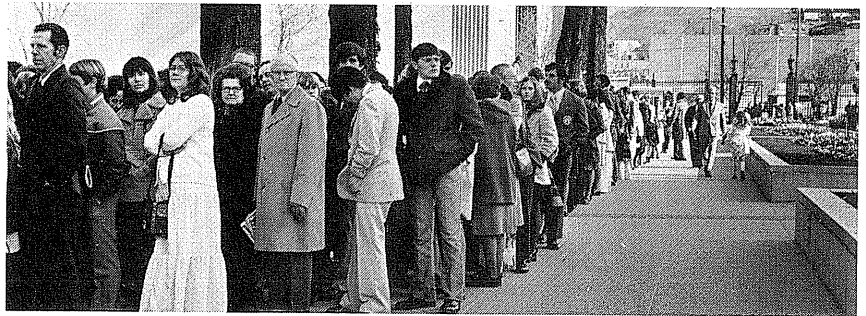
“또 시온의 백성의 기가 되리니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백성들

이 시온으로 나아오리라”

“그 날이 이르면 만국 백성이 시온으로 말미암아 떨며 시온의 무서운 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64 : 29, 33-34)

이 말씀이 패한 자의 소리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과 그의 기름부음받은 종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지도자를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삼상 15 : 22 참조)

우리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종들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성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圖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물가와 인건비가 앙등 추
세에 있고 인플레이 현상이
더욱 심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입이 일정한 개인이나 가족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 한푼한푼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며 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세기 전에 주님은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우리는 “나는 십일조를 낼 형편이 못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십일조를 바칠 수 없는 형편이 아닌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의 십분의 구를 가지고 잘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 현명하게 사용하며 여기에 주님의 축복이 더할 때가 자기 수입의 전부를 계획성이 없이 쓰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보다 훨씬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회원이 많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성실성과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원리(십일조)로 이 교회의 회원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로 누가 하나님 왕국의 편이며 적인지 알게 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메저렛 출판사, 1939, 225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란 무엇이나?”란 질문에 조셉 엘 위스틴 전 판리 감독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십분의 일이란 뜻입니다. 십일조는 임금 노동자의 총수입의 십분의 일입니다. 십일조는 정신 노동자의 순수입의 십분의 일입니다. 십일조는 농부의 순수입의 십분의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 따위의 물건을 수입에서 사듯이, 십일조란 농부가 그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는 생산품의 십분의 일도 포함됩니다. 십일조는 투자로 얻은 이익금의 십분의 일입니다. 십일조를 보험 약조금에서 내었다고 한다면 보험금에서 나오는 이익 배당금 총액의 십분의 일이 십일조입니다.”(대회 보고 1953년 4월 98페이지)

여러 대관장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개인에 속한 문제이며 십일조는 스스로 자진해서 바치는 헌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초기에 브리감 영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십일조를

바치겠다면 정직한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십일조에 대한 브리감 영의 말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5월 282페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십일조 징수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 매월 회계를 위해 사람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십일조 결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월 9페이지)

봉급을 받거나 봉급이 인상되었을 때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물론 농부와 그밖의 다른 사람들도 자기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입이 더 오른 것이 있는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오랜 동안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수월합니다. 연말까지 미루는 것보다 매월 정확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훨씬 어려움을 덜 겪습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복음 교리 2페이지)

십일조의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신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행할 때에는 너희가 한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는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선량하고 충실한 메리 스미스란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조셉 에프와 손자 조셉 필딩은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가 열 살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성실성과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소년 시절의 환경을 지금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봄에 우리가 감자 움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감자를 가져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십일조 사무실로 가져 가셨습니다. 그 해는 감자가 흉작이었던 해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린 소년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우리가 십일조 사무실 계단으로 올라가 감자를 내려 놓으려 하는데 서기 한 사람이 와서 어머니에게 ‘스미스 부인, 부인께서 십일조를 바치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십일조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현명한 일도 아니며 분별있는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십일조 사무실에서 보조를 받을 사람 가운데 튼튼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를 쳐다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형제님은 제가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만일 내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축복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기 때문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나는 이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번창하게 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1900년 4월 대회 보고 48페이지)

나는 1948년 반연차 대회 때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앉아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튜 카울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뉴우질랜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십일조의 율법을 진실로 믿고 준행하는 한 자매님을 방문했습니다. 카울리 형제님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마리오 자매님이 사는 동네를 지나는데 이 키가 작고 홀륭한 자매님을 찾았지요. 그 자매님은 그 때 팔순이 넘은 장님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사는 곳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방문을 할 뿐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는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 선교사도 없던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자매님의 집으로 들어가 마오리 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뒷뜰 조그만 화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팔을 뻗어 자매님의 손을 잡고는 코를 문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머니의 손은 깨끗한 손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싶은 걸요. 정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조금 있다가요’라고 말을 하고는 손과 무릎으로 그 작은 집을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의 한쪽 모퉁이에서 샅을 끄집어 들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거리를 재며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 멈추어 그곳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샅이 무엇인가 단단한 것과 부딪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항아리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윽고 그 항아리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서는 나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뉴우질랜드 화폐였습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00불(4만원)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십일조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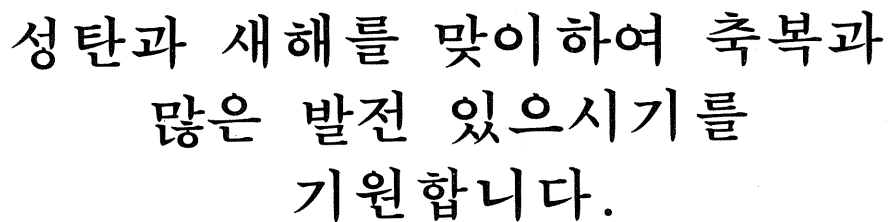
“나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십일조를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나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만큼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얼마간의 십일조를 미리 바치는 것입니다. 또 언젠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다시 이곳을 들릴지 모르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카울리 형제는 잠깐 말씀을 멈추고 당시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말씀을 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코와 이마를 할머니의 코와 이마에 대었습니다. 나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나의 두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1948년 10월 대회 보고 159-60 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성실히 그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방식대로 주어집니다. 그 축복은 재정적인 부를 안겨 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주어지며 힘과 화평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영적인 방법으로도 주어집니다. 주님의 축복은 일상적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圖

[illegible]

領

스테이크 부장단 이 호남
김 창선
최 욱환

